

# 소설로 보는 북한 젊은이들의 삶

백남룡의 「벗」

1980년대 후반, 통일이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면서 북한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 북한 문학작품들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다분히 호기심적인 그 관심은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그러들게 되었다.

백남룡의 「벗」(살림터)은 이전에 소개된 작품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1988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근래 북한이 당면한 문제를 보여주고 북한 문학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이 책을 읽어내는데 북한의 그런 변화된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자세 또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반쪽'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작품은 채순희라는 성악배우와 선반공인 리석춘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판사 정진우가 해결해 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적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는 당혹스러울 만하다. 북한에도 이혼문제가 있고 젊은이들이 '입치레와 눈치와 수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등은 마치 오래 닫혀있던 광문을 열어 금은보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거기에 더 세밀히 보면 주인공이 당과 수령에 충성하고 내부갈등 없이 주위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영웅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아내와 갈등하기도 하고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정진우라는 평범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가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끝끝내 채순희와 리석춘의 이혼을 중재하여 '사회의 세포인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모습은 허황되기보다는 현실적인 뉘새를 맡을 수 있다.

또한 현재 북한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특이하게 생각된다. 가령 이혼의 문제나 전제시대와 전쟁 미체제시대인 젊은층과의 갈등 같은 것은 이전의 북한 작품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점이다. 이 점은 북한의 문예정책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에서 현실적으로 그들 인민들에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과 그 해결의 모범을 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체제공정을 낳게 한다고 하는 인식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세밀한 자연, 서정묘사와 같은 형상화의 능력이다. 작가 백남룡의 능력인데 이것은 그의 작품이 북한에서 많이 읽힌다는 점과도 관계되는 것이다. 또한 마치 남한의 소설을 읽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 묘사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은 개인 창작이라는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 윤용식

서울 노원구 중계3동 주공APT 102동 1006호

## 「빙벽」

고원정은 소위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것은 그가 즐겨 사용하는 '정치적 알레고리' 수법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그의 소설에서 실명의 정치인이 등장하고(최후의 계엄령) 우리 사회에서 소재로서 금기시되던 군대의 문제를 다루는 점이 그를 잘 읽히는 소설가로 만든다. 또한 그런 소재적 측면과 더불어 그 소재들이 단순한 배경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의 권위주의에 오히려 깊이 천착해 그 본질들을 인식케 해준다는 점이 그의 소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이다. 바로 이 점이 고원정의 소설이 이와 비슷한 공간들을 다루는 정치나 군대소설과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몇가지 장점이 「빙벽」(현암사)이라는 9권의 장편소설을 재미있게 하고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놓지 못하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현철기'와 '박지섭'이라는 두 주인공을 통해 좁게는 그들의 조부라는 허위의 권위주의와 넓게는 군대라고 하는 권위주의 사회에 대한 본질을 파헤치고 저항하게 하는 것이 소설 「빙벽」이다. 또한 덧붙여 말하자면 간결한 문장을 통해 긴박감을 더해주는 문체와 60년대와 80년대 초반을 오가며 허위적인 전체주의를 본질을 파헤치는 추리소설 같은 요소들도 「빙벽」을 성공하게 해주는 요인이다.

하지만, 어느새 철기와 지섭의 편에 서서 소설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누구나 결말에 가서 심각한 허탈감을 맛보게 된다. 나약한 개인으로서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힘에 대항하는 '우리의' 두 주인공은 현실에서 그러지 못하는 독자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지만 중국에는 두 주인공과 같이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작가의 전체주의에 대한 개인적인 대항이라는 방식과 그에 연유하는 비극적 세계관 탓이다. 즉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집단을 설정할 때 그 집단 또한 전체주의화할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인식이 그러한 비극적 결말을 맺게 하는 필연적인 이유

이다. 그렇다면 철기가 죽고 그의 죽음 또한 '장석천 신화' 같은 허위의 권위주의에 희생물이 되고 방관자로서 지섭 또한 패배한 것임을 인정할 때, 독자인 우리는 허탈감과 씩씩함을 곱씹을수 밖에 없다. 그리고 차가운 현실이라는 벽앞에 다시 서는 것이다. 우리는 철기가 될 수 없으므로 또한 결국 거대한 전체주의에 대항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무모한 것이라는 허무감을 안고.

이 점은 고원정의 「빙벽」에서 가지는 큰 아쉬움이다. 아니 어쩌면 그의 작품세계 전체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다.

## 강영훈

서울 구로구 개봉1동 138-2 용두연립 4동 103호

## 「동요하는 배는 닻을 내리라」

김형수씨는 시인이자 평론가이다.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순수나 참여나, 무엇이 올바른 문학인가, 무엇이 최상의 문학인가 등을(문학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때에 문학이 지니는 근본 속성을 올바르게 헤명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학을 자기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자주문예'를 힘있게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다.

노동자, 농민 특히나 대학생들 속에서 그가 내세우는 '자주문예'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차츰차츰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지나온 길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문학을 포함한 문예 전반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김형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산문집이다.

크게 다섯 묶음으로 나뉘어져 지난 시절 그와 관계를 맺었던 소중한 사람들, 그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 존경하는 분들 애기가 첫 묶음으로 되어 있다. 특히나 그를 글쓰기로 이끌어진 박봉우 시인에게서 받은 감동은 대단한 것이었다. 예술을 통해 '진짜 인간'이 되는, 하여 '진정한 삶'을 누리려 애쓰는 그를 느끼게 해준다.

두번째 묶음과 세번째 묶음은 문예 전반에 대한 그의 입장과 근래에 나타났던 여러 모습들을 보며 느끼는 감정을 적었는데 서평이 여러편 들어 있다. 때문에 '자주문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페레스트로이카에 뒤이은 동구권의 변화,

독일통일 등의 국제 정세의 급속한 변화와 민자당 출현과 재집권 등 내부정세의 악화로 인한 동요의 시기에 처해 있는 우리 작가들에게 담담히 말한다. "일신의 안락을 위해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외로움들을 흔들지 말며, 스스로의 외로움으로 흔들리지 말자. 떠나려가면 난과된다……. 동요하는 배는 닻을 내리라 하여 그는 스스로 지난 10여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민족해방의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짚어가는 것이 '엄중한 이정표'임을 확신하면서 낙관을 갖기도 한다.

네번째 묶음은 북한문학에 대한 이해와 북한문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고려해야 될 것들과 여러 대학에서 말았던 시 심사평이 실려 있다. 창작의 자유에서 걸림돌이 되는 세계관의 한계, 창작조건의 한계, 창작방법의 한계를 가장 많이 극복한 문학을 북한의 '주체문학'이라 평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창작에 있어 속도전으로 우리에게 많은 부러움을 일으킨다.

다섯째 묶음은 최근 1, 2년 사이의 일기를 실었다. 이 글은 김형수라는 인간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게 한다. 이 따스한 체온은 말한다. "어서 '길'이 되자. 만인이 나를 믿어 행복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재차 다짐한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밤잠 설치고 준비해 가야 한다. 준비할 여력마저 없다면 새로이 준비할 후배를 돕기라도 해야 한다." 그를 이토록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지닌 사람 중심의 사상 때문이라.

어느 글 하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다. 매끄럽게 쓴 글체도 글체러니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비껴 뒤 맑은 하늘처럼 깨끗해지는 상쾌함을 혼자 지닐 수 없기에 권한다.

## 김병우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평2리 647

##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타당성조차 검토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서광사)은 매우 뜻깊고 고려해볼 만한 역할임에는 틀림없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모델로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은 토론교육의 중요성과 도덕

교육의 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색 중의 하나는 논리교육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논리훈련이야말로 모든 철학적 사유의 근간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고, 훌륭한 교사를 통한 논리습득이란 철학교육의 목표는 결코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 사유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논리학 수업에서처럼 단순한 논리법칙만을 암기하는 것으로 곧 논리성이 함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암기교육의 지양이 바로 우리가 문제삼는 철학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논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토론식 수업, 비판정신의 고양 등 원론적인 이야기를 빼고 어떤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교재가 우리가 바라는 교육목표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모두는 바로 어린이 철학교육교재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문제들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단순한 원론적인 교재보다는 보다 세부적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소중한 경험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의 철학교육이 결코 남보다 앞서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선 안된다.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에는 기존의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녀는 이미 학교에 들어오기 앞서 언어자본을 소유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철학교육이 남보다 나은 언어자본의 습득기술로 전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철학이 필요한 까닭인지 모른다.

## 나영옥

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 580번지

## 「행복한 책읽기」

나는 자주, '책읽기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서점을 드나드는 편이다. 마음에 드는 책 몇 권을 골라두고 서점문을 나설 때의 그 충실함은 무엇에도 비길 수가 없다. 그곳에서 만나는 형형색색의 지식들은 그저 훑어보기만 해도 즐거움을 준다. 책읽기야말로 가장 저렴한 값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급한 행복이 아닌가 싶다.

그날도 서가를 훑던 내 눈에 한권의 책이

단정하게 들어 왔다. 90년에 간암으로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의 「행복한 책읽기」(문학과지성사)라는 책이었다. 우선은 그 제목이 가져다 주는 편안한 공감으로 책을 펼쳐든 나는, '김현의 일기'로 되어 있는 부제에도 불구하고 책읽기와 문학에 대한 단상들이 대부분이어서 흡사 작가수첩 같은 뜻밖의 느낌을 받았다. '사적인 고백'이나 '생활의 편린' 같은 말들과 어울리는 일기형식을 선생 자신의 독특한 글쓰기로써 새로운 형식으로 창출한 김현 선생은 내밀한 개인적 자리마저 타인들의 글을 읽고 바라보는 데 활애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글을 쓰는 것, 또는 문학행위만이 삶, 그 자체인 것처럼 선생은 이 땅의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따뜻하고도 치열한 사유들을 생활 구석구석마다 쏟아부어 있었다. 그리하여 전편을 통해 스며있는 선생의 열정을 우리는 넉넉히 읽을 수가 있다.

나는, 선생의 언어들을 통해 비평과의 거리를 좁힌 기억을 갖고 있다. 그 전에 대하곤 했던 여러 비평들은, 내가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탓에 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찾아 읽던 평론집들이었는데 거개는 비평을 위한 비평이거나 텍스트인 작품들과의 자유로운 교감을 오히려 해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선생의 일련의 비평들은, 세상과 삶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감 넘치는 언어를 구사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어떤 본질의 결별을 쫓아 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어느 시인은 "1962년부터 70년까지 한국문학은 김현 비평에 의해 축복받았다"는 말로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설명한다. "이 세계는 살 만한가?" 하고 끊임없이 되묻는 선생의 목소리는 우리 문학의 틈새마다마다 스며들어 있다. 바로 이 책, 「행복한 책읽기」는 그러한 김현 선생의 86년부터 4년간의 유고 일기를 담고 있어 그의 해박한 문학적 안목과 세상읽기를 다시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임박해서 가끔씩 드러나는 선생의 개인적인 고뇌들은 진솔한 감동을 주기도

마지막 책장을 넘길 때, 나는 아, 살아있다고 외치는 그의 열정이 어느새 내 마음의 자리로 옮겨와 있음을 느꼈다.

## 남문희

서울 노원구 상계4동 5-16 30/4



## 샌프란시스코의 하룻밤

어제는 한솔기획 식구들이 사장님 방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하룻밤」(원제 : Dogfight)이라는

낸시 사보카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로즈는 보통 영화의 여주인공과 다르게 한솔식구처럼

키도 작고 뚱뚱하고 못 생긴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존 바에즈와 밥 딜런의 노래를 좋아하고

말은 일을 열심히 하는 순박하고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자존심이 강한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거칠고 험악한 해병인 버드레이스는 장난으로 로즈를 만났지만

그녀와 함께 짧은 하룻밤을 보내면서

사랑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를 본 후 한솔식구들은 로즈를 무척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한솔식구들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한솔식구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보시지 않으렵니까!!!

한솔기획에서는 출판기획, 교열·교정, 전산조판, 제작 등 출판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기획은 책을 사랑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의 기획물을 찾습니다. 단 책으로 얻을 수 있고 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올바른 출판문화의 주역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 735-4997 팩스 : 722-3866